

돈 주고 산 상장...목포 예술인들 '수상한 대통령상'

브로커 통해 위조된 상장 거래 의혹...행안부 상훈 기록도 없어
경력 부풀려 시에 작품 판매 등 혜택...전남예총 회원 등 9명 수사
목포경찰, 최소 2명 위조 정황 확인하고 브로커 행방 추적 나서

목포지역 예술인들이 돈을 주고 위조된 '대통령상'을 거래해 자신들의 약력을 부풀리는데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은 17일 전남예총 회원 등 목포지역 예술인 9명을 상대로 대통령상을 금전으로 구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상훈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상은 '시상(施賞)'에 해당하는 상훈으로, 공적에 대해 표창하는 '포상(褒賞)'과 달리 각종 교육이나 경기·경연 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들 예술인은 앞서 개인력 약력에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기재하거나 SNS에 상장 사진을 올리는 등 상훈 수여 사실을 공개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수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2명의 상장이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예술인은 각각 지난 2019년 9월 6일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여했다는 대통령상 상장과 지난 2022년 1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여한 대통령상 상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상장에는 대통령 직인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직인, '대한민국' 국새까지 찍혀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두 상장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상훈' 포털사이트에 이들의 상훈 기록이 등록된 바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예술인들이 특정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상장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

범인 브로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들 예술인은 모두 서울에 있는 특정 '미술대전' 주최사로부터 택배 배송을 통해 상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해당 회사로부터 "우리 미술대전에서 입상하거나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술대전 주최사 직원이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며, 신변 확보 시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 위조 사실을 속이고 예술인들과 상장을 거래했을 경우 사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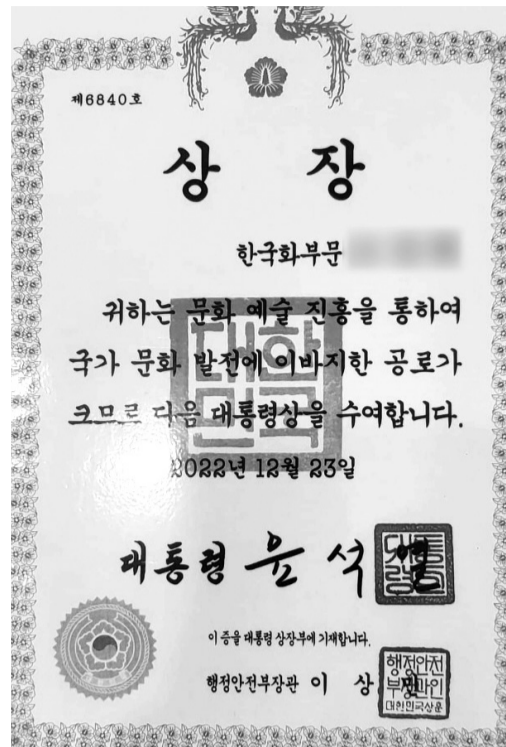
반면 예술인들이 위조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경우 범행 공모에 따른 별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예술인들 중 일부가 위조된 상훈 기록을 바탕으로 목포시에 작품을 판매하는 등 혜택을 본 것으로 보고 상장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목포시는 해마다 4000여만원을 들여 지역 예술인 작품을 구입해 청사에 전시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최근 상장 거래 의혹을 받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일부 구입해 시 청사와 목포경찰서 등지에 걸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통령상 수상 기록이 있을 경우 작품이 선정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며 "원칙에 따라 수 차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입한 작품이므로 구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구체적인 작품 구입 기록에 관해서는 즉시 공개를 거부했다.

지역 예술계에서는 "대통령상을 받으면 호(號)



목포 한 예술인이 SNS에 공개한 위조 대통령상 상장. <독자 제공>

당 가격이 1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뛰는 등 개인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며 "자기 작품 가격의 단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대통령상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상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상장을 거래한 이가 목포에만 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연루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며 "객관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상장 위조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비잔적 머금은 먹구름 17일 광주시 동구 일대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이날 광주시에서는 정미전선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재신청 했지만 광주지법 공탁관 "서류 미비"...또 '보정 권고'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다시 냈지만 서류가 미비해 광주지법 공탁관이 '보정 권고'를 내렸다.

1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난 14일 광주지법에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광주지법 공탁관은 필수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어 17일 재단측에 보정 권고를 보냈다. 누락된 서류는 이 할아버지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알려졌다.

공탁 접수를 위해선 피공탁자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 3일에 이어 또다시 보정 권고를 받은 것이다.

재단측은 이번에 공탁 신청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포함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측은 "지난 3일에도 이 할아버지 초본이 없어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초본 없이 이 할아버지의 주소만 가지고 공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보정 권고 등기가 도착한 뒤 일정 기한이 지나도 보정이 되지 않으면 '불수리' 처리가 된다. 만약 보정이 되더라도 광주지법 공탁관이 공탁 수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광주지법이 심리 중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과 관련, 당시 재단이 제출한 공탁 신청서에는 양 할머니의 주민등록 초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개월 영아 숨진 채 발견 극단 선택 친모 병원 치료 광주북부경찰, 경위 조사

광주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의 친모인 A(33)씨는 유서를 남겨두고 아파트 6층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A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부분 철거' 확정아이파크 입주자들 21일 서구청 항의 방문

최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부분 철거' 논란에 불거진 것(7월 14일자 광주일보 7면)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해체계획 인허가 기관인 광주시 서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 8명은 오는 21일 오후 8시 광주시 서구청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자리에서 서구청이 화정아이파크 '부분 철거'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거나 교차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었다.

서구는 지난해 10월 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철거 범위에서 상가층(1-3층)을 제외하고 주거층만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구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입주

예정자들과 합의를 마쳤다"는 설명만 듣고 입주예정자와 관련 논의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업 입주자대표협 대표는 "해체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철거 범위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9개월 동안 입주자 측 의견을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서구청 또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도 최소한의 책무인 입주자와 소통조차 게을리 한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한 목소리로 상가층을 포함한 전면 철거를 원하고 있으며, 추후 철거 범위를 재조정하는 데도 서구청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